

“선착순 아니다” 꼼꼼히 따져 차분하게 신청

■안심전환대출 2차 출시 첫날 은행 가보니

마감일까지 신청하면 돼 1차때보다 한산 원리금 상환 부담에 발길 돌리는 고객도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규모로 추가 출시된 30일,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신도심에 위치한 은행 지점에는 고객들이 다소 몰리긴 했지만 1차 판매 때보다는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다. 2차 판매는 1차 판매 때와는 달리 선착순이 아니어서 마감일인 다음달 3일까지 신청하면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층이 최대한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감일까지 일괄신청을 받은 뒤 20조원 한도 내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 찾은 광산구 KB국민은행 수원지점 영업창구는 은행문이 열리기도

전에 수십 명씩 대기했던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이날 오전 10건 이내의 상담 또는 안심전환대출 전환 신청이 이뤄지는데 그쳤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주 26~27일 1차 판매분 한도 소진을 앞두고 10여 명이 대기하던 것과 비교하면 한산한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점심시간에도 자리를 비우기 어려웠던 1차 때와는 많이 다르다. 전화 상담 요청은 많이 오지만 방문하는 고객은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광산구 무진대로에 위치한 NH농협은행 광주영업부도 대기자가 없어 곧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을 정도였다. 1차 때보다 고

객이 적은 이유에 대해 담당 직원은 “1차 때보다 문의 전화는 더 많이 오지만, 고객들이 선착순이 아니라 일괄신청한 후 선정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차분히 접수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 지점 역시 고객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었던 1차 판매 때와는 달리, 일부 신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3~4명이 대기했다. 상담하거나 신청하는 정도였다.

이처럼 일부 아파트 밀집 신도심 지역에서는 여전히 대기 고객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은행지점이 1차 출시 당시보다 다소 침착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이 대출을 받고서 다음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껴 신청을 망설이거나 대안을 문의하는 고객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NH농협은행 광주영업부 이승정 계장은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큰 고객들의 경우 이자만 내다가 다음달부터 원금도

함께 갚아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때문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전 기존 대출상환을 해치우면서 일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저금이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중은행을 찾은 일부 고객은 “안심전환대출 요건이 소득이 높은 이들에게 치우쳐 있고 원리금 상환 등 제한이 너무 많다”며 회의하기도 했다.

“주위에서 조금이라도 이율을 낮출 수 있는 게 어디냐?”며 신청을 권하기에 은행문이 열리자마자 왔다는 박모씨는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데다 당장 원리금 상환이 늘어난다는 부담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시중은행 담당자들은 아직은 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 첫날인 만큼 다음달 2~3일 막바지쯤 ‘갈아타기 막차’를 타려는 고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0.04 (+10.24) ▼ 금리 (국고채 3년) 1.75% (-0.02)
- ▲ 코스닥 646.74 (+6.62) ▲ 환율 (USD) 1104.90원 (+1.60)

KB국민은행 주식형펀드 수익률 20.2% ... 은행권 1위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투자자들의 재테크 패턴이 급변한 가운데 KB국민은행의 주식형펀드 장기투자 수익률과 판매잔액이 국내 은행권에서 1위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 직원이 고객에게 펀드상품을 설명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금융투자협회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주식형펀드 3년 수익률은 평균 11.5%로 주가지수(KOSPI) 상승률(4.9%)보다 배 이상 높았다. 특히 KB국민은행의 수익률이 20.2%로 가장 높았다. 외환은행이 14.5%로 뒤를 이었으나 KB에 비하면 5.7%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하나은행(9.8%)과 신한은행(8.5%), 우리은행(6.2%)은 평균 수익률을 밑돌았다.

주식형펀드 판매잔액도 KB국민은행이 가장 많은 8조284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위를 기록한 신한은행(4조3905억원)의 배에 가까운 수치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

는 펀드 완전판매 프로세스에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에서도 KB국민은행이 최우수판매사(시중 은행 중 최고)로 선정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KB국민은행은 펀드의 수익률만큼이나 고객에 맞는 적절한 펀드 선정과 정확한 상품설명에 힘쓰고 있다”며 “상품 판매에 있어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영업점 직원에 대해 펀드 판매 프로세스 교육을 철저히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운 서울 대치·방배지점

개점식 갖고 본격 영업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30일, 서울 대치동지점과 방배지점 개점식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광주은행 대치동지점과 방배지점은 지난 2일 삼성동지점 개점 이후 서울에 4번째와 5번째로 개설된 소형점포다. 각 지점에는 직원 5명이 근무하며, 비움이 적게 들면서도 수도권 영업력 강화와 고객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개점식에서 김한 광주은행장은 “서울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지역으로 지역경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광주·전남지역 출향인과 상공인들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라며 “광주은행 소형점포를 수도권에 배치해 이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수도권의 풍부한 자금을 끌어들이어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은행은 이번 개점으로 서울에 총 9개의 점포망을 갖추게 됐으며 2분기에는 인천에도 점포를 개점, 수도권 고객들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광주은행은 30일 김한 은행장(가운데)과 임직원, 고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치동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빛가람 에너지밸리’ 입주 예정 기업 11곳으로 늘어

한전-전남도, 에너지밸리센터 건립 협약

한국전력의 ‘빛가람 에너지 밸리’ 입주 예정기업이 11곳으로 늘었다.

한국전력은 30일 한전 본사에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에너지밸리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전남도와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앤아이시스템과 새일시스템즈, 에드캡솔루션, 에스큐브아이, 보해양조, 네오피스, 이우티이씨, 도건시스템, 이디에스, HK에너지 등 10개사가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입주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총 329억원을 투자해 322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달 초 에너지밸리 1호 기업(보성파워텍)을 유치한데 이어 전력·에너지신산업·전략ICT 분야 10개 기업을 추가 유치한 것이다.

또 한전과 전남도, 한전KDN, 한전KPS, 나주시, 기초전력연구원, 전기산업진흥회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에너지밸리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에너지밸리센터는 기업 연구개발, 창업·보육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예산은 200억원 규모이며 올 하반기에 착공, 내년 준공 예정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10개 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등을 지원

하게 돼 전방위적인 기업 유치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은 본 계도에 올라 창조경제가 풍성한 결실을 보는데 기여했다는 데 이번 협약의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투자를 결정한 기업 대표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기업의 이전과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운영, 인력 양성 확대, 유관기관 지원 시스템 구축 등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투자기업의 조기 정착과 혁신도시 입주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SK건설, 광주서 일자리 창출 ‘주택사업 워크숍’

SK건설이 광주 지역 협력사업 강화 등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SK건설은 지난 27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김진범 부사장(건축주택사업부문장)과 임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남지역주택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주택사업 영업전략 워크숍’을 열었다.

SK건설은 이날 워크숍에서 광주지역의 인력을 채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협력업체를 새롭게 발굴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임직원의 기부로 모은 1100만원 상당의 기부금을 이날 광주시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을 위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으며 복지시설 방문 및 봉사활동 등도 늘릴 계획이다. <사진> 최근 SK건설은 광주지역 재건축·재



개발 사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에서 예정된 입주주공 재건축, 신가동 재개발, 광천동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방침이다.

김수환 도시정비사업1팀장은 “호남권 수주사업 활동을 위한 영업소 설치 계획이 이번 워크숍에서 적극 검토됐으며 이는 호남권 도시정비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건설은 지난 2013년 마크치핑 재개발사업인 ‘상무 SK 뉴’를 통해 시공능력과 브랜드파워를 고객들로부터 인정 받은 바 있다. <임동률기자exian@

2015년 광주광역시 부활절 연합예배

일시 2015년 4월 5일(주일) 오후 3시

장소 광주시청 문화광장 (상무지구)

능력

변화

연합

- 주 최 : 광주광역시기독교단협의회
- 주 관 : 2015 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
- 후 원 : 광주광역시초교파장로연합회,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광주장로교협의회, 광주기독교단체연합회, 광주CBS, 광주CTS, 광주극동방송, 미션21, 기독교호남신문, 기독교타임스